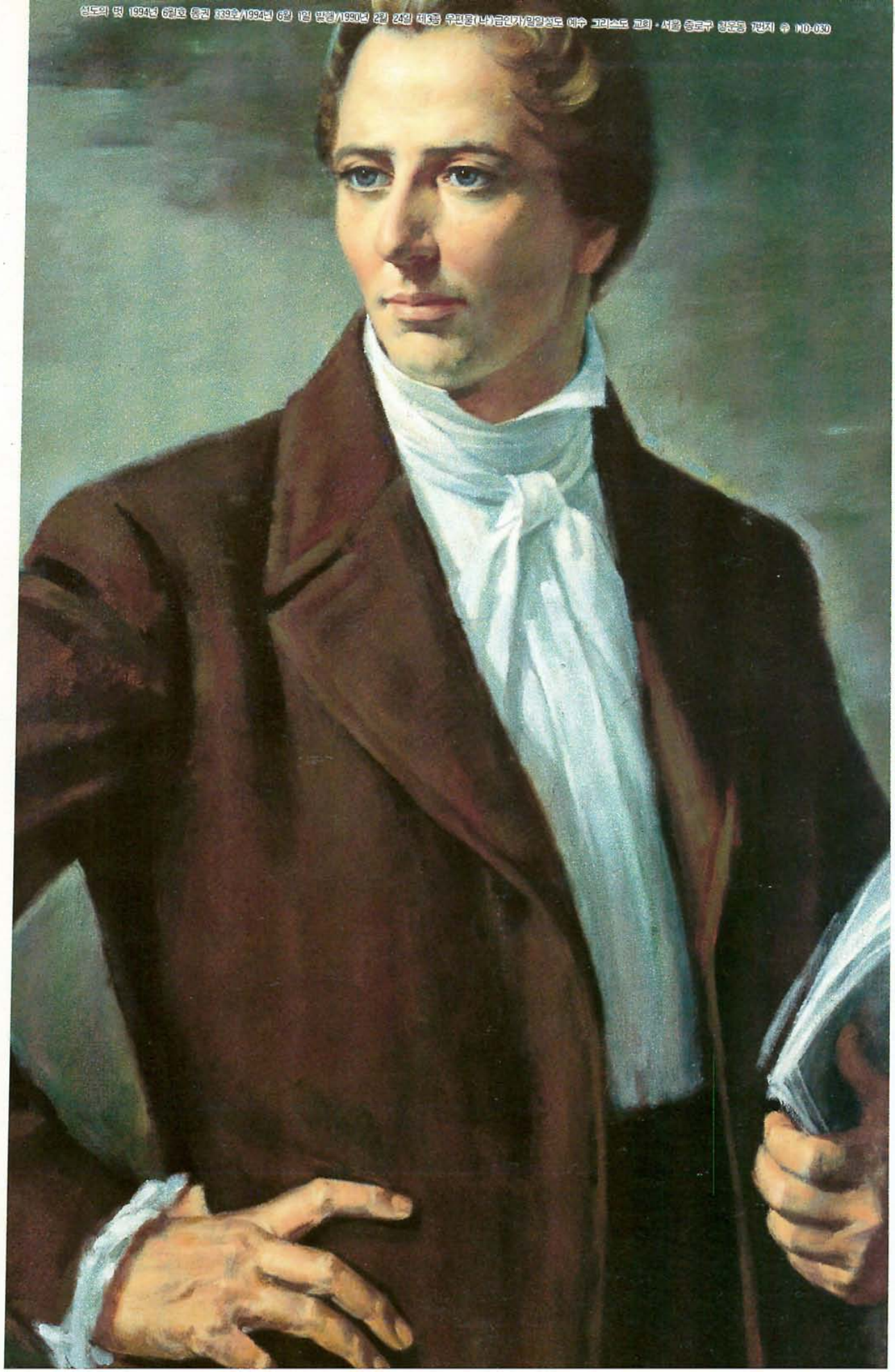


성도의 벗 1994년 6월호 특권 300원/1994년 6월 1일 발행/1990년 2월 24일 제정 우편물(나)금인자(발행) 예수 그리스도 교의 · 서울 종로구 광운동 7번지 우 110-030

1994 6
성도의 벗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금년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가 자신의 피로써 회복에 대한 간증을 인봉하였던 그 엄숙한 시간"이 왔는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요셉 스미스(그림:앨빈 기턴스)는 1844년 6월 27일에 순교했다. 그의 생애와 사명이 대관장단 메시지와 이번 호에서 꾸민 다른 특집 기사에 설명되어 있다.

어린이란 표지 설명:

오슬길 위에서의 모성애,
그림:그레고리 시바스

꿈아를 가로질러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향하는 힘든 여행을 한 말일성도 개척자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았다. 그 중 한 소녀의 여행 이야기가 "사라 마틸다 파르"에 나온다.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2
 금주의 성구 스테이시 차일드 위크스9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 그레트
 데이비드 미첼10
 94세에 다시 태어남 루이스 볼프24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밀렛26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마빈 케이 가드너36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지?"
 시 알 케르쉬밤44

청소년란

타히티 섬의 진주 캐스린 시 패린14
 누가 지배하는가? 케네스 존슨18
 질의 응답 : 어떻게 하면 저희 가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을까요?20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톤34
 새로운 여름 친구들 재닛 토마스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음25
 교회 및 지역 소식65

어린이란

모세 비비언 폴슨50
 친구가 친구에게 :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52
 함께 나누는 시간 :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디 에드워드54
 사라 마틸다 파르 조이 존슨 히튼56
 심심풀이59
 노래 : 나 침례받고 나면 니타 데일 밀너60
 이야기 : 보물 론다 페티61
 물문경 이야기 : 엘마가 신앙에 대해 가르침64

성도의 벗은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니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게간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참원회 : 하워드 더블류 현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패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피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앤 벨스, 달린 에이치 옥스, 앤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편집인 : 렉스 디 페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안슨
고문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렌디,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로널드 엘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루이브
잡지 그래픽 부장 : 앨 엠 가오사키

성도의 벗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켈

편집인 보조 / 아린이안 : 디앤 워커
스캐줄 관리 : 매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인 : 새리 쿡
생산 관리 : 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제니퍼 테트와일러, 제인 앤 켈프, 데니즈 커비

구독 담당 스태프 :
발행 부수 책임자 :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 조이스 헨스
마케팅 부장 : 렌드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39호, 제31권, 제6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4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권
편집인 : 한 심 의
발행소 :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삼리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재단 법인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프린트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 10/92 번역 승인 - 10/92
June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6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8,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훌륭한 잡지

교회에 속한 지 얼마 안된 회원인 저는 *탐블리*(영어 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탐블리*는 저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세상 곳곳에 게시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는 제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저를 인도하고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매달 *탐블리*를 받아볼 때마다 저는 몹시 흥분되어 즉시 읽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잡지를 저와는 신앙이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 줌으로써, 그들과 복음 진리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이 아이 프리메로
필리핀 타르락 스테이크
카밀링 제와드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됨

라스텔라(이태리어 판)는 이태리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태리 로마 선교부에 도착해서 *라스텔라*를 읽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사업 초기에는 그 잡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이태리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스텔라*가 약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 저는 이태리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예수 그리스도의 아

름다운 복음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메시지와 기사를 읽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봉사한 지부들의 성도들과 활동이 소개되는 지역 소식을 즐겨 읽습니다.

에릭 사만 장로
이태리 로마 선교부

우리 가정의 예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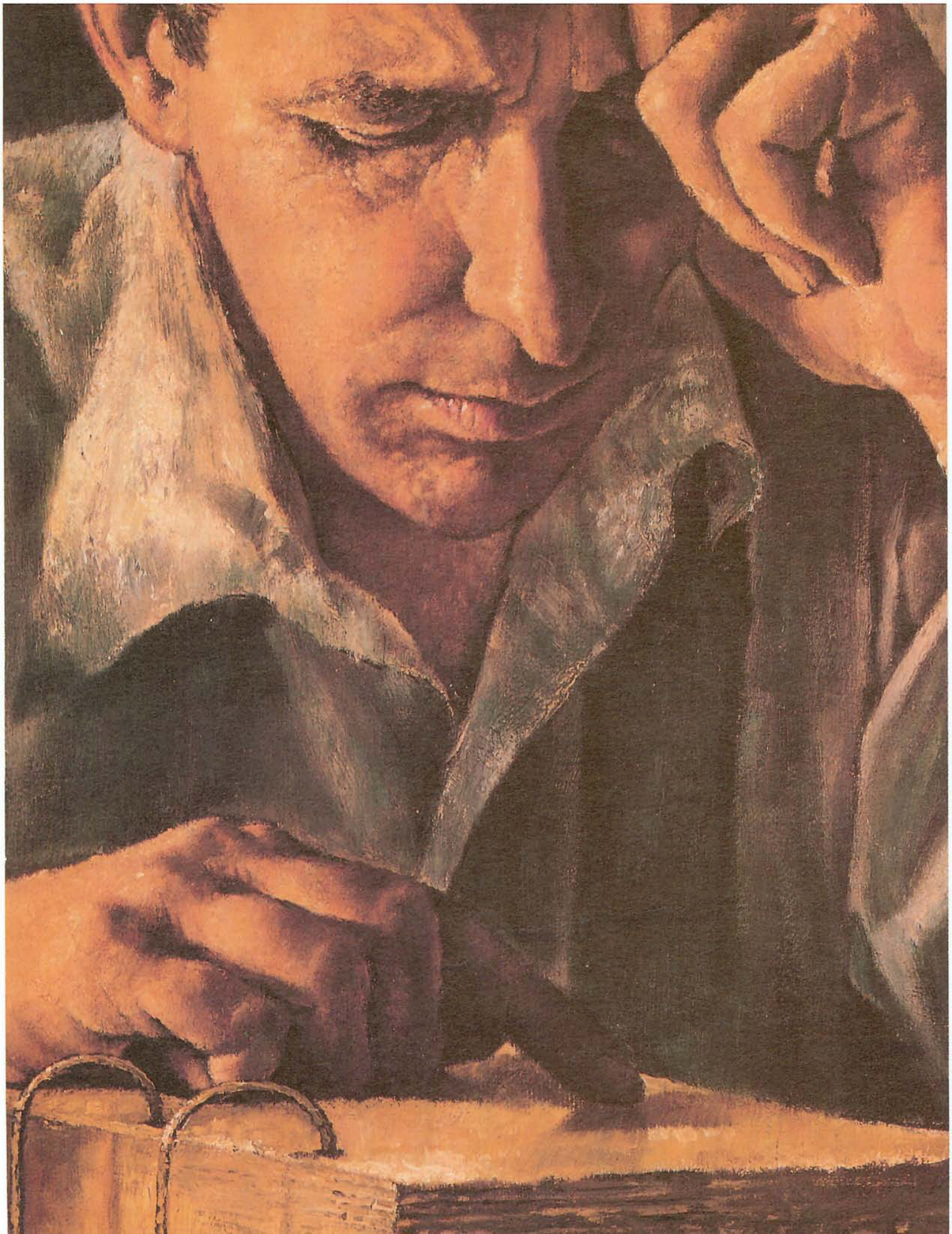
최근에 저는 와드에서 공과를 하던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와 기타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권고를 듣고 그분들의 메시지를 우리 가정으로 가져 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정기 구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와드 잡지 대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받아서 무척 행복합니다. 주님은 제가 이 부름에 응한 것으로 인해 저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르셀로 이르날도 카스틸로 나바레테
칠레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크
알미란테 라 토레 와드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관리 본부 성도의 벗 담당자. *관리 본부에서는 보내 주신 기사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INTERNATIONAL MAGAZINE으로 보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 는 1805년 12월 23일 미국 버몬트주 윈조군 쇠론읍에
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인 이 위
대한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는 말씀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의 간증은 포르투갈어, 스페
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한국어 및 문명화된
세상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 심오한 말
씀을 읽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 예언자
인 요셉 스미스의 순수한 간증의 진가입니다.

지금부터 1805년 12월 23일의 버몬트주 윈조군 쇠론읍으로 가 보겠습니
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그날 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되돌아 보시겠습니까? 요셉 스미스 일세는
루시 맥 스미스와 함께 방금 태어난 아기를 자랑스럽게 내려다 보며, 아내
가 임신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이 아기를 출산한 것에 대해 기쁨이 넘쳐
주님께 감사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어느 시인이 그러했듯이 이 어린



평생 동안 모범으로 위대한
원리들을 가르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닮고자 힘써
노력한다면 구세주에 관한
우리의 간증이 강화될 것이다.

아기를 보고 “이 세상에서 개화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짓 떠나 새롭게 피어난 신선하고 향기로운 인류의 꽃”² 이라고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선택된 영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특이한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까?” 혹은 “예언자 요셉은 나나 내 형제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까?”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루시의 글을 읽어 보면 예언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제가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제 글을 읽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저 그 또래의 아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외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접어 두겠습니다.”³ 이것이 소년 요셉의 어머니가 아들의 어린 시절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병마와 불운이 그의 가족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부친은 몇몇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일곱 살 되던 해에 요셉과 그의 형제 자매들이 발진 티푸스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쉽게 회복되었으나 요셉만은 한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남아 있었는데, 그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당시(1800년대 초)의 의료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의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의사들이 와서 가족들에게 아기의 뼈를 일부만 떼어 내서 통증을 치유하는 새로운 수술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취제나 기타 통증을 억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다리를 베고 뼈를 떼어 낼 때 요셉을 묶기 위해 밧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은 “저를 묶지 마세요. 제 몸이 자유로우면 수술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을 거예요.”라



예언자 요셉이 입던 외투를 요셉에게서 받아 입고 따뜻해진 존 이 페이지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하며 6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술을 좀 마셔 보겠니?... 무엇이라도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수술을 견디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거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녜요...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 앉아 팔로 저를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제 뼈를 떼어 내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그래서 요셉 스미스 일체는 아들을 팔로 잡고 의사들은 다리 살을 해집고 감염된 뼈 조각을 떼어 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절기는 했지만, 요셉의 통증은 치유되었습니다.⁴ 요셉 스미스는 일곱 살 때에 우리에게 *모범*으로써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요셉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식구가 열 한 명이 된 그의 가족은 버몬트주를 떠나 뉴욕주 온타리오군에 있는 팔마이리로 이사했으며, 그로부터 4년 뒤 같은 군에 있는 만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요셉이 종교 부흥이 사방

에서 일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다고 묘사한 것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혼란과 서로 다른 종파간의 분쟁이 너무도 컸으므로 나 같은 세상 일에 미숙한 소년에게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들 종교가들이 일으킨 커다란 혼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⁵

예언자는 이 구절을 읽고 주님의 이 약속을 시험하여 주님께 여쭙어 보든가 아니면 암흑 속에 영원히 머무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 갔는데, 그는 이때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내어 기도한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도 경전을 읽고 경전의 내용을 이해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가 진지하게 찾고 있는 진리를 알려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모범으로써*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시현을 보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자기 또래의 모든 친구들과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과 및 그의 적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경멸과 놀림을 얼마나 많이 당해야 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린 소년으로서는 거의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록을 읽어 보면 요셉이 자신에게 정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 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

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⁶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범으로써*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그 위대한 첫번째 시현이 있는 후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 후 삼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상하게 생각치 않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모범으로써* 인내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금판을 전달받은 후부터, 예언자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어려운 임무인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어 있는 모든 순간과 모든 생각과 밤낮으로, 아니 아마도 매시간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이 일에 자신을 몰두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약 2천 6백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5백 쪽이 넘는 분량의 기록을 90일 이내에 번역하기 위해 요구된 헌신과 희생 및 노고를 우리는 다만 짐작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책 전체를 통해 터무니 없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 임무를 위해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모범으로써*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요셉이 번역하는 일을 도우면서 보내던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가슴에 한량없는 감사를 일깨워 주신 하늘의 영감이 명하시는 바를 들으며 앉아 있었던 그날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다. 물론경이라 하는 역사, 즉 기록을... 우림과 둠뎀으로 그가 번역하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바를 나는 매일 방해받지 않고 써 내려갔다.”⁷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참으로 신앙을 일깨워 주는 능

력을 축복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요셉은 존 이 페이지에게 가서 “페이지 형제님, 주님께서 형제님을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존 이 페이지는 무척 놀라서 “어째서입니까, 스미스 형제님? 저는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을 외투조차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존 이 페이지에게 건네 주고는, “자, 존. 이걸 입으십시오. 주님이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형제님은 그 외투를 받고 캐나다로 가서 2년 동안 8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6백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⁸

또 한번은, 요셉이 나부에서 한 무리의 형제들에게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씀이 끝나자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던지 청중 가운데 380명의 장로들이 그 즉시 선교 사업을 떠나겠다고 자원했습니다.”⁸

예언자 요셉은 선교 사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833년 10월 12일에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뉴욕주 페리스버그에서 전도 활동을 하느라 가족들을 오랫동안 떠나 있던 관계로 가족을 염려하던 중에, 다음 계시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너희 곧 나의 친구 시드니와 요셉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저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리라. 이는 내 안에 모든 권세가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고에 귀를 기울리라.

“보라, 이곳...에 나는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나니, 이 동쪽 땅 주변의 지역에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을 향하여 너희 목소리를 높이라.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에 너희가 말

할 바를 얻게 될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주노니, 곧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성신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증거해 주시리라.”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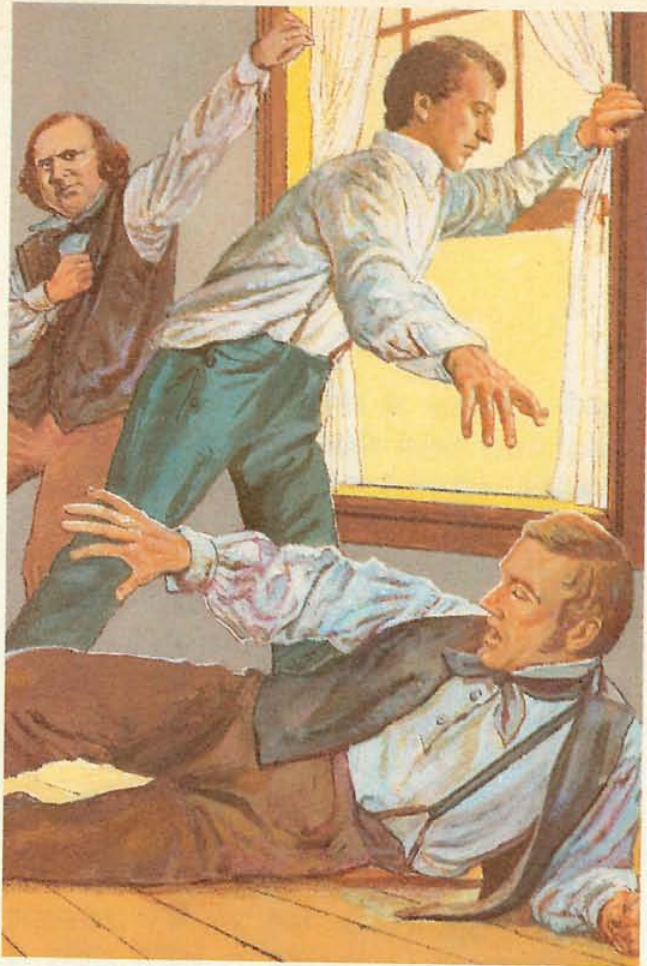
요셉과 시드니는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사람들이 선교 사업을 자원하도록 영감을 주고 그의 외투를 벗어 선교 사업을 떠나는 존 페이지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써* 선교 사업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가장 감미로우면서도 가장 슬픈 가르침 중의 하나는 그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현을 통해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록키 산맥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요셉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을 박해자들로부터 인도해 내서 그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록키 산맥에 대한 그의 시현과 계획을 접어 두고 공정성을 확신할 수도 없는 재판에 자신을 매어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에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¹¹ 예언자의 이 말은 국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범으로써* 이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필멸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위대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하이람과 존 테일러 및 윌라드 리차즈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무장한 채 감옥으로 밀려들어와 계단을 올라와서 폭언을 퍼부으며 총을 마구 쏘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람이 총에 맞아 죽었으며, 존 테일러도 가슴에 몇 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권총을 손에 들고 자신과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으나, 문을 두드려 대는 소리를 듣고, 폭도들이 그 문으로 곧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자신을 죽이려는 와중에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은 1844년 6월 27일, 카테지 감옥으로 밀려들어온 무장 폭도들에 의해 살해됐다. 하이람이 먼저 총을 맞았으며, 예언자 요셉은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폭도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서 결국 순교했다.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마저 살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상에서 취한 마지막 행동은 그 문을 떠나 윌라드 리차즈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권총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폭도들의 주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돌려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가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윌라드 리차드는 생명을 구했으며, 존 테일러도 부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¹² 예언자 요셉은 모범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금년 6월 27일은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가 자신의 피로써 회복에 대한 간증을 인봉하였던 그 엄숙한 사건이 있는 지 1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서 예언자 요셉의 간증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의 계획 속으로 개종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캐나다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사와라는 도시에서 두 명의 선교사 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날 오후에 가가 호호를 방문하며 전도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한 선교사는 경험이 있었으며, 한 명은 새로운 선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마 플라드씨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플라드씨는 퐁퐁 열어 있는 선교사들을 보고 불쌍한 생각에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플라드씨의 기도에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잘못 인도되고 있는 이 불쌍한 두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존재하지도 않고 이들 자신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자 플라드씨는 그들에게 다시는 자기 집을 찾지 말라고 하며, 그들이 집을 나서자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어쨌든 당신들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요!”하고 말하며 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걸음을 옮겼으나, 그 집을 채 멀리 떠나 오지 않았을 때, 후임 동반자가 “장로님, 우린 아직 플라드씨에게 대답하지 않았잖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우린 쫓겨난거요, 새로운 지역으로 갑시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선교사는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결국 두 장로는 플라드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플라드씨는 화를 내며, “내가 젊은이들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을텐데!”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임 동반자가 있는 힘을 다해 용기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플라드씨, 저희가 문을 나설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

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라드씨,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영감에 따라 몰몬경으로 알려진 성스러운 기록을 번역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그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바로 그 폴라드씨가 어느 간증 모임에서 그 기념비적인 날에 있었던 경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저리 몸을 뒤척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제게 주고 간 신앙개조가 적힌 작은 카드에 있는 주소로 그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른 영을 가지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진리를 찾는 진지한 구도자로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그 용기있고 겸손한 선교사들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해 주신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5편에는 요셉 스미스에 관한 존 테일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어 놓았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를 번역하여 동서양대륙에 이를 간행하는 일에 매개체가 되어 이 책에 실려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였고... 교리와 성약을 이루는 계시와 계명과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세상에 내어 놓았고 또 수천의 말일성도를 모아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지울 수 없는 영예와 명성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앞에서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과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도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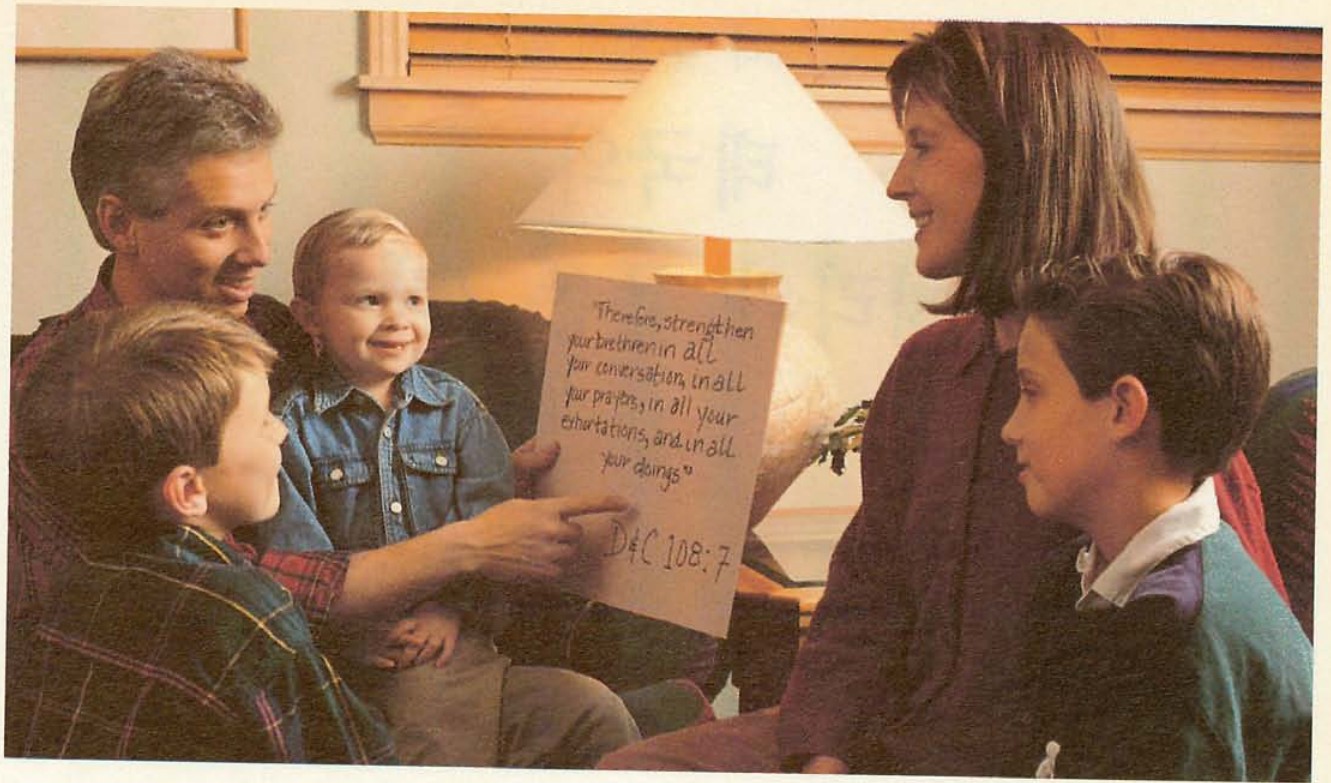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부치는 참으로 적절한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가 것처럼 아름답게 가르친 위대한 원리를 각자의 생활에 적용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인도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을 생활에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의 모범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미덕을 가르치며, 그 원리와 미덕에 따라 생활했다.
2.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범으로써 우리에게 용기와 신앙, 정직, 인내, 성실, 선교 사업의 중요성, 국법에 대한 순종 및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사랑을 가르쳤다.

참고 문헌

1. 요셉 스미스서 2:3.
2. 제럴드 매시.
3. 루시 맥 스미스, *어머니가 말하는 요셉 스미스의 역사*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9년, 67쪽).
4.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 54~58쪽 참조.
5. 요셉 스미스서 2:8, 11.
6. 요셉 스미스서 2:25.
7. 요셉 스미스 2서 주석
8. *역사 기록*, 5권, 5번(1886년 5월), 57쪽 참조.
9. *교회 정사*, 5:139 참조.
10. *교리와 성약* 100:1~3, 5~6, 8.
11. *교리와 성약* 135:4.
12. *요한복음* 15:13.
13. *교리와 성약* 135:3.



금주의 성구

스테이시 차일드 워크스

열살도 안된 우리 아들들은 어린이들 특유의 장난기가 심해서 가끔 가정의 밤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곤 한다. 어느 날 밤에는 공과중에 유난히도 영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 그날 모임이 끝난 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응답이 즉시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 자녀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릴까봐 우려한 나머지 가정의 밤 시간에 경전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자녀들이 경전을 사랑하고 또 경전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가정의 밤에서 우리 가족은 “금주의 성구”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모임 전에 좋아하는 성구를 골라 밝은 색의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비한 성구를 가족들에게 보여 주고 단어 하나씩 읽어 주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리와 성약 108:7)

가족들이 성구를 따라 읽은 후 나는 이 성구가 왜 내게 중요한지, 또 이 성구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강한 영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가족들의 눈길이 부엌 찬장에 붙여 놓은 “금주의 성구”에 쏠렸다. 우리는 성구의 의미를 음미한 다음 큰소리로 다시 읽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아들 하나가 “금주의 성구”를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놀랐다. 문득 나도 성구가 저절로 암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금주의 성구”를 소개하고 간증을 듣는 사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구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가슴은 그 메시지로 인해 가벼워졌으며, 그 영으로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았다. □

“세계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치라완 폰폰그레트

데이비드 미첼

“우리 아버지는 제가 네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두 명의 괴한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숙녀를 도와주시다가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으며 그것이 항상 마음속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세 살 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제 상처는 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구원의 계획으로 언젠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방콕에 사는 루치라완 폰폰그레트 자매는 십대 초에 영어 회화반에서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녀는 처음 모임에 이어 상호향상회 활동에 초대받았다.

“재미있는 저녁 시간이 끝난 후 회원 한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누군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누군가 저를 안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도와 느낌으로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느낌을 자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교사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함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두 달에 걸쳐 저에게 토론을 가르쳤고 토론이 끝나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저도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너무나 흥분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들이 참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때 그분이 저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학교로 가는 길에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창문을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장로님! 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알고요!’

“저는 어머니께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때 까지도 재혼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공과반에서 (상단 왼쪽 사진), 마닐라 성전에서 (상단
오른쪽 사진), 또는 그녀가 가르치는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인 때에나 항상 루치라완 폰폰그레드 자매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매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은 열성적인 불교 신자였지만 제게 교회가 최고의 것이 되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폰폰그레트 자매는 태국 북부에 있는 차앙마이 대학에 진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또한 대학 시절 영어 회화를 공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 학위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허락하시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집에는 한 청년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5세 가량된 사람으로 어머니에게는 양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나빠서 승려로 봉사하는 기간(역자 주: 태국에는 모든 성년 남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승려로 봉사해야 하는 국법이 있다.) 동안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를 몹시 질투해서 어머니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와는 같이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을, 특히 질투하고 있던 그 청년도 사랑한다는 것을 어머니께 보여야 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날 아침 그를 보자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칠년 동안 그와 함께 지내면서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보았을 때 어머니에게 제가 정말로 선교사로 나가길 원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지가 아주 중요하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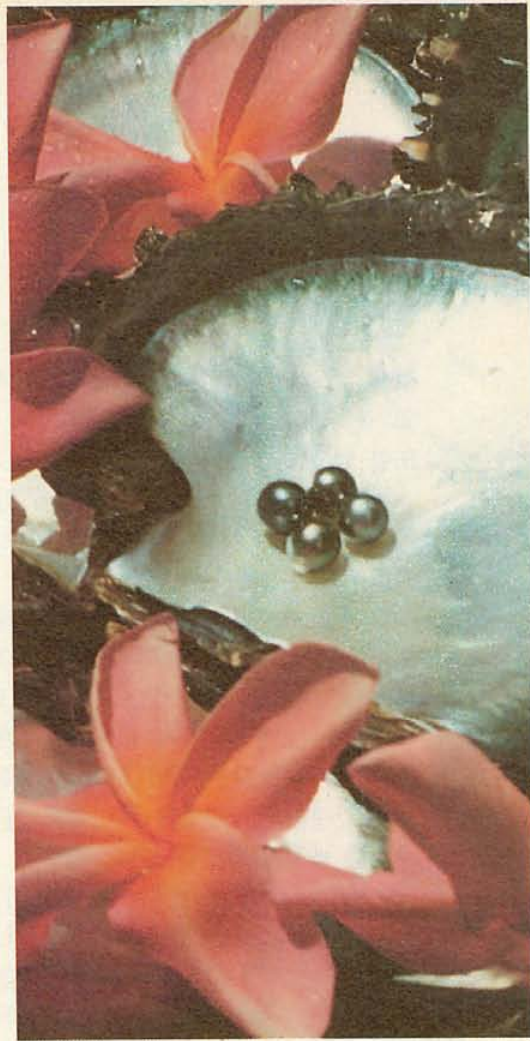
폰폰그레트 자매는 태국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귀환한 다음 5년 동안 출판사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5년이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원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녀는 출버리에 있는 파나트-니크롬 피난민 수용소에 일자리를 지원했다. 그곳은 동남 아시아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시켜 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피난민 수용소들 중에는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미국의 관습과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수용소의 책임자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피난민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저를 바라보더니 ‘당신 혹시 물론 아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채용되었습니다.”

폰폰그레트 자매는 피난민들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도 가르쳤다. 그녀는 “저는 세미나리 학생 시절에 매일 일기를 쓰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하고 싶은 성구를 종이에 적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한다.

폰폰그레트 자매는 침례를 받은 후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을 주는 원천이 되어 왔다. “저는 성전 엔다우먼트와 축복사의 축복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롭긴 했었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계명 안에서 살고,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 하며,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타히티 섬의 진주

캐스린 시 페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역자 주 : 태평양 중남부에 널리 산재하는 작은 섬들의 총칭)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에 퍼져 살고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를 갖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문제 1: 장소. 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섬들간에 정기적인 통신 수단이나 운송 수단이 없다.

문제 2: 법률. 정부는 청소년들의 모든 모임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공인된 표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 3: 식량. 부서진 산호로 이루어진 환초섬(고리 모양의 산호



리피니 문제: 8월 1987년

섬)에서는 식용 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음식은 물고기, 코코넛, 타히티에서 배로 실어오는 음식들이다.

문제 4: 식수. 강이나 호수가 없다. 비만이 유일한 식수의 원천이다.

문제 5: 숙소. 외곽의 섬들에는 기숙사나 묵을 만한 건물 또는 호텔이 없다.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너무 많은 문제에 부딪히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의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면 그들이 해결 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계속 대회를

계획해 갔다. 그러자 곧 해결 방법이 나왔다.

문제 1에 대한 해결책: 집 가까운 곳에서 대회를 연다. 대회를 계획한 관계자들은 지역 차원에서 소규모 대회를 여러 번 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들이 먼 곳으로 여행하거나 많은 경비를 쓰지 않고도 모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첫번째 대회는 타카로아라는 투아모투 군도의 일촌 일곱 개 섬 가운데 한곳에서 열렸다. 타카로아는 396명의 주민 중 270명이 말일성도여서 그 지역 교회의 중심지이다.

문제 2에 대한 해결책: 기꺼이 도와줄 감독자를 찾는다. 파에아 타히티 스테이크의 집행 서기인 스탠리

타히티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대회를 계획하면서 아주 어려운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양식하는 굴에서 얻은 교훈으로 문제점들을 큰 축복으로 바꾸었다.

보로디엔 형제가 적합했다. 학교 심리학자인 그는 여름 휴가를 청소년 모임과 여름 캠프 그리고 소풍을 계획하면서 보냈다. 그는 정부의 인정을 이미 받았고 기쁘게 대회를 감독하겠다고 했다.

문제 3, 4, 5에 대한 해결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 타카로아 섬은 비가 많이 왔었다. 저장 탱크가 가득 차서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태양이 작렬하는 타히티에서 열린
즐거웠던 청소년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강화시켜 주고
새로운 친구들과 우정을 쌓게 했으며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해주었다.

있었다. 일부 식량은 냉장 용기에
담아 공급해야 했지만 가까운 마니
히 섬에 사는 제과업자인 피토리 파
우라 지부장이 빵을 제공했고, 지역
회원들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만큼
고기를 잡고 코코넛을 모을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숙소 문제는 대부
분의 청소년들이 회원들의 집에서
민박을 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가져 온 텐트로 해변에
서 야영을 했다.

드디어 대회가 열렸다! 투아모투
북부 청소년 대회에 참석한 일흔 명
의 말일성도 청소년들 대부분은 세
개의 섬 출신으로 직접적이든 간접
적이든 진주 양식 산업과 연관이 있
었다. 그들은 진주 양식에 필수적인

스킨 다이빙(역자 주: 물안경과 스
노클, 오리발을 가지고 하는 잠수)
과 스쿠버 다이빙(역자 주: 스킨 다
이빙과 같은 장비에 산소 탱크를 가
지고 함)에 아주 능숙했다.

진주 양식 외에도 타카로아 섬의
명물로는 한 세기 이전에 지어진 예
배당이였다. 그 건물은 손으로 직접
주조한 산호 벽돌로 건축되었으며
빨간 양철 지붕에 종탑은 27미터나
높이 뻗어 있었다. 예배당은 섬의
어떤 건물보다 크고 높으며 이 작은
지역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물이었다. 청소년 대회를 열기
에 완벽한 장소였다.

고깃배나 쾌속 모터 보트를 타고

도착한 청소년들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각 연령층과 타카로아, 마니히, 타카포토 섬 출신의 청소년들이 섞였다. 그들은 물론경의 인물인 이더, 니파이, 물론, 또 섬의 회원들에게 인기가 있는 영웅, 헤이 고드를 따라 그룹의 이름을 지었다.

타카로아 섬의 신시아 토파리우아는 “처음에 제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번째 날이 지나자 다른 섬들에서 온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라고 말했다.

마니히 섬에서 온 에릭 히오는 “저는 이렇게 많은 물론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봉사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대회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은 봉사를 할 때였다. 아주 많은 비가 왔던 하루의 오전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은 매일 여러 시간을 들여 섬을 청소했다.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잡초나 덩굴을 없앴으며 바위들을 제거하고 음식 찌꺼기를 없앴다. 또 선창을 따라 해변을 깨끗이 하고 마을 묘지와 교회 건물, 운동장, 축구장을 정비했다. 그 장소들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눈썹을 찌푸리게 했던 곳이다.

일본에서 진주 접목 기술(진주를 양식하기 위해 굴 속에 아주 작은 접조개 조각을 넣는 기술)을 공부

하다 방학 중 타카로아 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있던 마니 케로오아 테아가 월계수 상을 받았다. 그녀는 “들판을 청소하고 모두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명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우리가 도착했을 때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그곳을 떠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했다. 마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 한명과 함께 참석했다. 그 친구는 히나 텍스터로 그 대회에 참석한 다른 여러 명의 비회원과 같이 말일 성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루는 경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매일 개인 경전 공부를 한 다음 아침을 먹고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런 후 봉사 활동을 하고 운동이나 그룹 활동도 하였다. “코코넛 나무와 게”, “개와 가죽 끈”, “도둑과 진주” 등과 같은 섬 특유의 게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과 운동의 힘든 하루가 끝난 후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을 식히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 정원 사이의 원시적 라군(환초에 둘러싸인 얕은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밝은 색채의 열대 물고기떼들과 호기심이 많지만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리프(암초) 상어들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주었다.

아침의 경전 공부 시간과 기도 모임 시간 외에도 노변의 모임이 두 번, 가정의 밤이 한 번 있어서 신

앙, 도덕적인 표준, 경전 공부, 목표 설정, 끝까지 건담, 가장 훌륭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함, 선교 사업 준비, 세미나리에 참석함과 같은 영적인 주제가 강조되었다. 한 연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교회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말한 후 초기의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희생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청소년들도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도록 권고했다.

대회는 간증 모임을 끝으로 폐회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구세주를 알고 그에게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다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다지 활동적이지 못했던 한 청소년은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새로 얻었다고 말했다. “질서있는 생활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키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진주와도 같은 대회였다. 청소년 대회는 외곽의 섬에 사는 회원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문제점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내심과 더불어 배웠다. 이번 대회는 그들이 라군에서 양식하는 검은 진주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주 작은 접조개 조각은 자극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굴은 시간을 두고 그 조각을 돌보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

누가 지배하는가?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희



여러분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다.

열 여섯 살 때 저는 인쇄소의 견습생이었습니다. 한 동료 견습생이 오토바이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영국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 날 그가 저에게 '내 오토바이에 타보지 않겠니?'라고 물었습니다. 꽤 괜찮은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호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저는 아주 얇은 옷을 입은 채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그는 시내의 도로를 이리저리 빠져나와 곧게 뻗은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속 160킬로미터로 달려 본 적 있니?”

“아니.”

“이제 해보게 될 거야.”

“안돼!”

그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오토바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렸습니다. 시속 150킬로미터를 지난 160킬로미터가 되자 얼굴 피부가 팽팽하게 경직되었고 옷은 채찍처럼 휘날렸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전을 맡긴 것이며 그것은 실제로 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것입니다. 나는 그날 두 번 다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려면, 여러분이 하거나 받아들이는 모든 권유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1959년에 그러한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까지도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알지 못했

을 때였습니다. 어느 무도회에서 저는 복음 가운데에서 성장한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곧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에게 '성전에서가 아니라면 당신과 결혼하는 건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저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게 그러한 제안을 해 준 것에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제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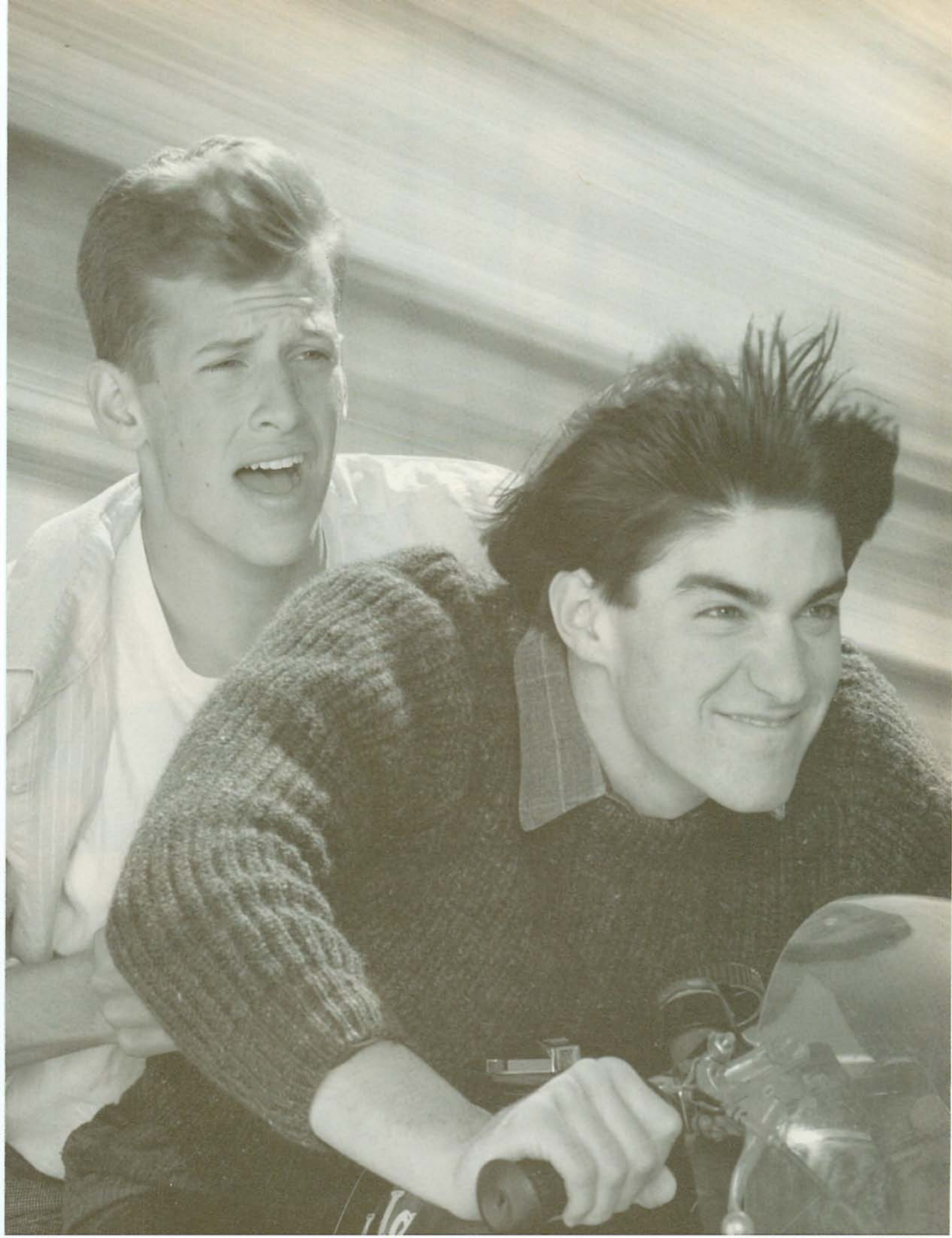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성약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성전을 방문했으며 그가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선택한 반려자를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도 지켜 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이라는 저의 부름보다 더 성스러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부름에 우선하며, 부름을 넘어서 계속되는 성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약들은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성스러운 것들을 인봉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제도와 기타 여러 지역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위대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에 응한다면 이 사업을 행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저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권유를 해주었고, 제가 그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199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한 말씀





어떻게 하면 저희 가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도무지 가정갈지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싸움을 많이 하고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 단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대답: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자매님의 어깨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매님은 자녀라는 위치에 있으며, 가족들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자매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족간의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난다면 다른 의사 소통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가족들이 감정을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도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시작이 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 밤 시간 중에 가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종이에 적게 하는 모임을 일년 중 여러 번 갖게 하십시오. 이러한 모임은 종이에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드시 가장이 주관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종이에 적은 것들을 소리내어 읽게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목표를 정하고, 성취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다면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매님의 오빠나 언니 혹은 동생들을 지지하십시오. 자매님이 형제와 자매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 그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님의 오빠가 운동 팀에 속해 있다면 그가 하는 시합을 관람하십시오. 언니가 합창단에서 노래하면 콘서트에 가십시오. 그들의 경기나 공연이 어떠했든지간에 그들을 비판하거나 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좋은 점들을 말해주고 나쁜 점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활동을 계획해도 좋을지 먼저 가족들에게 묻거나 자진해서 계획하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면 자매님 혼자서 계획하십시오. 자매님의 구상을 가족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가족 중 몇 명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처음의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재점검하고 다시 시도하도록 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매님이 부탁받은 것은 완전히 행하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자매님에게 도움

을 청하시면 불평하지 말고 도와드리십시오. 또한 귀가 시간이 있다면 어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자매님이 합당하게 되면 논쟁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면 가정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매님의 교사나 고문,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가족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자매님과 함께 하셔서 자매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자매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독자의 대답:

저희 아버지는 비활동 회원입니다. 그점이 가족 간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생활이 변화된 것을 아실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제가 집에서 이루어 놓은 훌륭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의기 소침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예배가 끝난 후 저는 여동생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격려의 편지를 남겨두기도 하고 언니가 교회에 입고 갈 드레스를 다려놓던가 남동생의 축구 유니폼을 세탁해 놓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누가 그러한 일을 하는지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그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요구대로 익명으로 기재함

필요하다면 친지나 친구 혹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후 부모님께 자매님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십시오. 자매님이 가족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 준다면 자매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역시 커질 것입니다.



오렉사 디
프로코소, 12세
필리핀,
투구에가라오
스테이크
이사벨라 카바간
와드

가족들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함께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왜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토모코 미소노, 16세
일본,
동경 남부 스테이크, 시부야 와드

“사회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라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자매님은 성공하기 위해 가정을 강화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히 해야 합니다. 대화할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들도 자매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마리아 골다 메이크
빅토리아 디
파브리칸테, 19세
말로환 스테이크
하고노이 지부

자매님의 가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이 상처를 받고 나쁜 감정을 가져서 가족들과 다투었다면 자매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서로 용서하고 줌다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형제님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자매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며, 자매님은 화가 났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 세실리아 라투나, 16세,
필리핀,
레가즈피 필리핀 스테이크
레가즈피 제1와드

저희 청년 회장님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우리가 그

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지만 한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일은 저와 제 여동생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분들의 냅킨에 사랑한다고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고 우리는 이제 매일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간의 단합의 열쇠는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님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데니아 콘칼레스
에스, 19세
칠레,
칠레 후알펜 스테이크
비오비와 와드

저희 부모님은 비활동 회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금 여동생이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교회에 참석할 뚜렷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모님께 계속 모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면 저희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와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소리아 파쿰메스,
25세
브라질,
콘타젬 지방부
리아쵸 와드

자매님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자매님은 가족들의 단점들만 찾고 장점들은 찾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자매님을 필요로 할 때 제일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매님이 침착하고 인내하며 분별력을 발휘하면 자매님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신뢰감이 형성되면 자매님은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과 같은 좋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세실리아 알시로스, 16세
필리핀 나가시

행복한 표정을 보이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기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자매님의 행복함에 반응해서 그들 역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알파티 로이 바이투이투이, 26세,
사모아,
우포투 사모아 서 스테이크
파레라타이 지부

저희 부모님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셔서 가족간에도 그로 인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빛을 갖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여름 동안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직접 한 달 동안의 청구서를 지불하게 해서 저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알게 된 뒤 저희는 그분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저희가 기꺼이 도와드리려는 걸 보게 되자 저희를 존중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두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독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기재함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영감을 얻도록 간구하고 가족들에게 매일 기도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럴드 소리타 장로, 24세,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저는 가족들에게 제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신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회에 관한 느낌을 나눌 때면 좋은 모범을 보이고 비활동 회원인 우리 가족을 활동화시켜야 한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헬레르토 모레이사라사르, 20세
콜롬비아,
사리 스테이크,
로스알멘드로스
와드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모여 함께 보낼 시간을 계획합니다. 함께 계획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각 개

인의 성취해야 할 책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매님도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자매님의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로베나 시 레베라, 20세
필리핀
카바나투안
스테이크,
타라베라 지부

여러분도 질의 응답에 여러분의 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1994년 7월 1일까지 관리 본부(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빛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로 보내 주시면 성도의 빛 담당자가 정리하여 1994년 8월 1일 전까지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로 도착하도록 보낼 것입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소속 스테이크와 와드도 적어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어로 써서 보내면 영어로 번역되어 실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신 서류는 반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개인적이거나 아주 사적인 것이라면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편지가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우리는 금식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금식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있는 금식을 할 수 있을까? □



94세에 다시 태어남

루이스 볼프

1989년 3월, 나는 당시 동독에 속해 있었던 비스마르크의 한 병원에 심각한 병으로 입원해 있었다. 내 나이는 94세로 살 의욕을 잃은 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딸이 함부르크에서 병문안을 왔는데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결국 딸과 사위가 나를 병원에서 퇴원 시키고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항상 딸이 확신에 차 있고 어떤 힘을 가진 것에 감탄해 왔다. 내가 딸에게 그 힘에 대해 질문하자 딸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해서 얻는다고 말했다. 내 딸은 여러 해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했었다. 하지만 나는 딸의 새로운 종교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신교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딸의 집에 있게 되자 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전의 구절들을 읽어 주기 시작했다. 또한 두 명의 자매 선교사를 초대해서 내게 더 많은 이야

기: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에델리 자매(왼쪽) 및 영 자매와 함께 한 루이스 볼프 자매. 오른쪽은 루이스의 딸인 마레안네 라이메르스.

기를 해주게 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자매들이 방문하는 것을 즐겼고 토론이 모두 끝나자 마침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1989년 8월 27일에 94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즉시 훌륭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내가 계속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 끝까지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시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내가 이생에서 침례의 성약을 맺도록 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었다. □

볼프 자매는 침례받은 지 8개월 후 평화로운 임종을 맞았다.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음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집에서 온 편지 같아서 저는 축복문을 읽을 때면 언제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라고 수산은 말한다.

아버지는 가정의 축복사이므로 가족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크 축복사는 아홉이 그의 열두 아들에게 준 것과 같은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창세기 48~49장 참조) 스테이크 축복사는 우리의 혈통을 밝혀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축복을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책임들을 지적하여 주시도록 성임받았다. 스테이크 축복사가 준 축복문만이 교회 역사부에 기록되어 함께 철해지게 된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온전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야 하며, 또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감독님이나 지부장님과 접견을 하여 추천서를 받는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소속된 스테이크 축복사와 약속을 한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를 한다. 에린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저는 축복을 받으러 갈 때 몇 가지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 여러 주 동안 준비했으며, 금식하고 기도를 한 후 갖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과 그 밖에 그때



그림: 달린 마쉬

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시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특별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축복문을 정구적으로 재음미할 수 있도록 축복문의 사본을 받게 된다.

• 축복사의 축복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축복사의 축복은 평화를 가져 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딸로서 갖는 영원한 본성과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때 함께 참석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특별하고 개인적인 것인가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들에 대해 저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가까운 가족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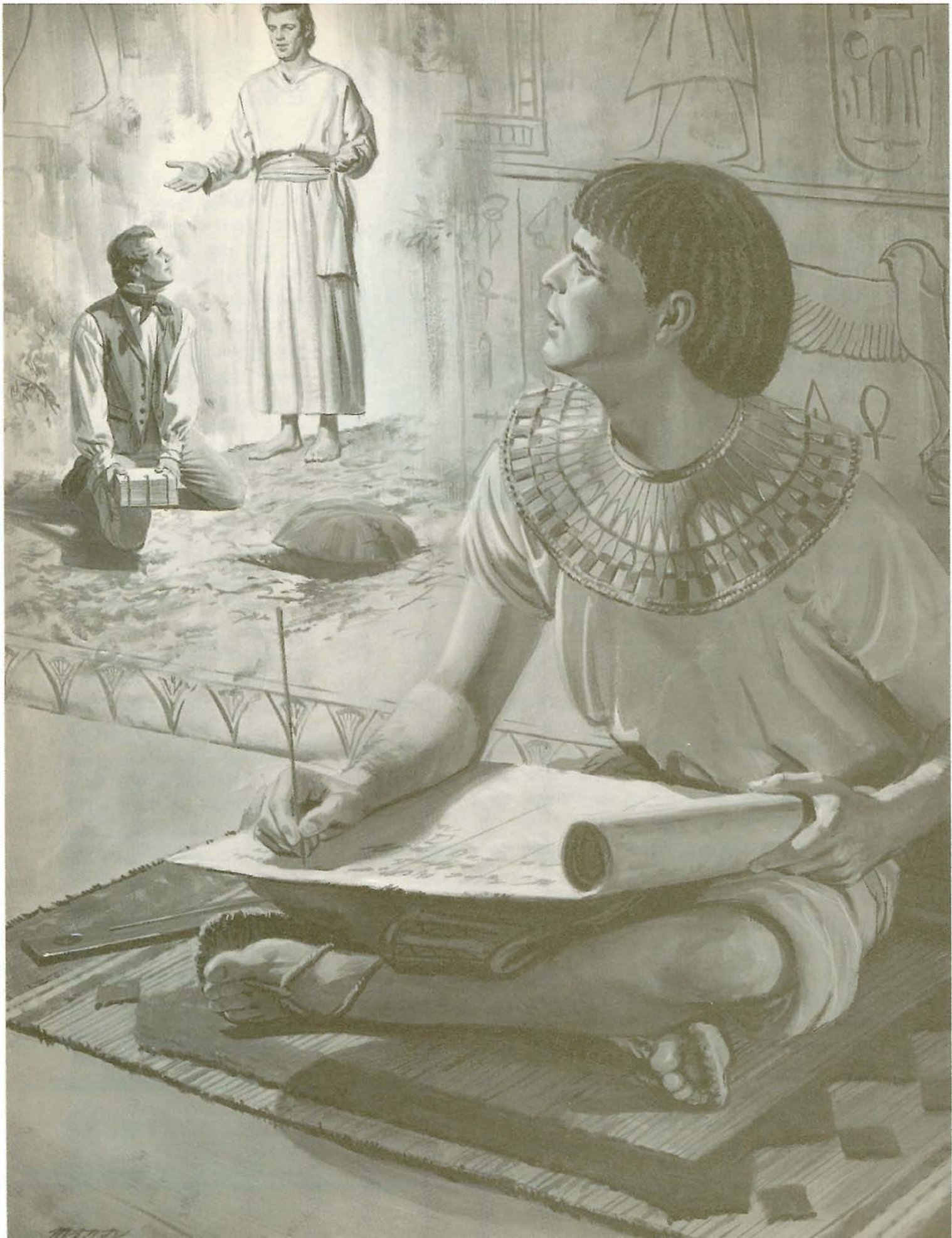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축복사의 축복은 신성한 것이므로 경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과 비교해서도 안된다. 축복문의 길이나 감동적인 어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상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각자에게 독특하고도 특별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제 앞에는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었으며,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 행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라고 히더는 말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인생에서 평화를 주는 여러분의 보증서입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을 어김없이 여러분의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의 리아호나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84~85쪽)

축복사의 축복에는 훈계와 약속과 확신이 들어 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재능, 그리고 때로는 부름에 대해서도 말해 준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위안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의지가 되고, 의로운 일을 택하도록 매일 노력 할 때 우리를 강화시켜 준다.

• 축복사의 축복을 어떻게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가? □



예언자들 중의 요셉 스미스

그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뚝 선 증인이다

로버트 엘 밀렛

물 론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19세기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으며, 20세기 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여전히 수수께끼같은 인물이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나의 내력을 모른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내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내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정사 6:317)

그의 주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 스미스 역시 이 생에서 어떤 고독을 이겨낼 것이 요구되었다. 자라서 예언자가 된 이 농촌 소년은 성스러운 구속주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요셉 역시 적어도 어느 정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박해와 의심 뿐만 아니라 한낮의 영광스러운 햇살 아래 걸으면서 황혼의 희미한 빛 속을 흡족해 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만이 겪는 고독으로 특징지어진다.

주님은 애굽의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내가 네 몸의 소산 중에서 훌륭한 선견자를 세우리니, 저가 너의 몸의 소산들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보라... 네 몸의 소산에 관한 것을 적게...하리라.”(니파이이서 3:7, 18)

그는 어려운 시절에 아내인 엠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며, 나는 그분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소. 나는 생명을 그분의 손에 맡겼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 내 생명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데 가치가 있소.”(요셉 스미스의 개인 기록, 던 시 제시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239쪽) 이러한 말을 통해 우리는 그의 겸손과 성공의 기초가 된 비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속에 걷고 있음을 알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대변인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대인들에게 알려짐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는 주님의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에베소서 1:10) 하신 때이기 때문에, 고대 성도들이 몹시 고대하고 열망하였던 바로 그때이다. 그들은 그 시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인도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이 세상이 놓이기 오래 전, 천국 회의에서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들의 신권의 충만한 열쇠와 권세를 받을 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복음의 경륜의 시대

그의 부친과 그의 조부와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들의 선조와 아브라함에서 홍수까지, 홍수에서 에녹까지, 에녹에서 다시 아담까지의 그들의 선조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초부터 이 사람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과 그 피의 흐름을 지켜 보셨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관리하기 위해 영원 전에 예임되었습니다.”(브리검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슬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08쪽)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에 요셉 스미스가 온다는 것과 말일에 그가 하게 될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고대의 요셉(니파이이서 3:7, 18 참조), 부활하여 니파이인에게 나타나신 구세주(니파이삼서 21:9~11 참조), 모로나이(몰몬서 8:14~16, 23~25 참조), 침례 요한(요셉 스미스 영감역, 요한복음 1:20~22 참조),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재림 이전에 모든 것을 회복할 위대한 예언자 일라이어스에 대해 말하였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8쪽 참조)

요셉 스미스가 고대인들에게 알려진 또 다른 경우가

있었으니, 그는 육신을 입은 필멸의 성역 기간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요셉 스미스보다 뛰어난 경전 권위자가 없었다. 경전을 읽는 것과 그 저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르다. 세상의 학자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가 아담, 에녹, 노아,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직접 대면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설교집 13:47; 17:374; 21:94, 161~164; 23:362 참조) 하늘에서 내려와 요셉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그들의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부여했다.(교리와 성약 128:20 참조)

이들 사건을 요약하여 존 테일러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들의 협의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맨먼저 성별 하셔서 삶의 원리를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지닌 원리로 말미암아 주님과와는 물론 고대의 사도와 예언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담, 셋,

복음의 경륜의 시대(연대는 대략적인 것임)

아담, 주전 4000년



에녹, 주전 3400년



노아, 주전 2900년



아브라함, 주전 2000년



복음의 경륜의 시대란 “주님께서 지상에 최소한 한 사람의 종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스러운 신권과 열쇠를 갖고서 지상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성스러운 언약을 맺은 종이 있는 시대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복음이 다시 계시된다.” 아담 이래로 많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다. 이 중에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인도한 경륜의 시대가 있었다. 니파이 백성, 야렛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역시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있었다. 비록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경륜의

에녹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살았던 사도들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친숙한 것처럼 이 사람들과 친숙한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경륜의 시대를 소개해야 했으며, 고대의 하나님의 종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설교집, 21:94) 요셉 스미스는 경전 구절을 알고 있었고, 그 구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경전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알고 있었으며, 중심 인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고린도전서 14:32)라고 설명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자와 대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가운데에도 순서가 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

러분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노아를 지나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한참 내려와서 예언자와 사도들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난 다음, 빛과 이해의 영을 지닌 지혜롭고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대는 너희를 통해 내 말을 들으리라.” 오 너희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교리와 성약에 대한 강연, 1984년 스페리 심포지엄, 유타주 샌디: 랜델 출판사, 1984년 4쪽)

아담, 노아, 모세,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셉 스미스 역시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이다.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권세를 지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가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구원과 승영의 계획을 다시 나타내 보이는 도구가 되며, 구원의 성약과 의식을 포함하여 성스러운 변형의 권세를 경륜의 시대라 불리우는 시대 동안에 백성들에게 베푸는 도구가 된다.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는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는 탁월한 증인이다. 그는 자신이

모세, 주전 1450년



그리스도, 절정기



요셉 스미스, 1820년



시대마다 각각 특별한 공헌을 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인도하신 경륜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대속이라는 지상의 필요 사항을 완수하셨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인도한 경륜의 시대는 주님의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던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다.(성경 사전, “경륜의 시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 직접 안다.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는 구원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성령의 빛을 받는 것이 바로 그의 간증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륜의 시대의 지도자의 부름과 직분에 대해 간증을 한다.

그래서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모든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자이다. 그를 뒤따르는 다른 모든 예언자나 사도는 이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의 반사 영상이며 메아리이고 해설자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 시대에 임명한 사람을 통해 계시하신 것들을 세상에 메아리치게 하고 해설하고 펼쳐 보이기 위해 온다.”(“이 세대는 너희를 통해 내 말을 얻으리라.” 4~5쪽)

사실상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그의 이름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다시피 경륜의 시대를 연 지도자는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는 탁월한 계시자이다. 그러므로 요셉 스미스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대한 간증을 뜻한다. 반면에 요셉 스미스를 명백하게 거부하는 것, 즉 그의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증거하는 영적인 영감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누가복음 10:16, 교리와 성약 1:38; 84:36; 112:20 비교)라고 말씀하셨다.

요셉 스미스의 참되고 열렬한 간증 및 회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영적인 은사인 거룩한 권세가 하나 있는데, 이 영적인 은사 또는 권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승인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언자의 조카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믿는데,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복종했다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씀했다.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요셉 스미스의 비범한 역할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말을 잘 과장하지 않는 존 테일러 장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에녹이나 아브라함, 야곱 또는 모세보다 많은 일을 했을까? 테일러 장로가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요셉 스미스는 요엘이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시기에 정당한 성역자로 봉사한다.(요엘 2:28~29 참조) 모로나이는 1823년 9월 요셉에게 처음 나타나서 요엘서에 있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나 멀지 않아 성취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41)라고 말했다. 모로나이의 방문이 있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꿈을 꾸며 시현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 뒤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게다가 이 영은 신앙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후에 다음과 같이 영감받은 말씀을 했다.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복음이 회복된 이후, 이러한 발견과 발명은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문에 부흥과 종교 개혁이 있는 후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가 천사가 방문하였던 때까지 있었던 발견이나 발명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구원의 교리 1:170) 간단히 말해서 산업 혁명 이후부터 현재의 정보 시대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발전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 영원토록 경배하더라.”(교리와 성약 76: 19~21)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인 하나님의 영이 있어 왔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의 문명과 팽창의 시대를 관리한다.

2.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대부분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의 부름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희생하실 때”(사도행전 3:21), 즉 복천년 동안 지속될 회복의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부른다. 요셉 스미스는 자라서 “창세 이전부터 밝혀지지 아니하고 현명한 자와 분별이 있는 자에게 숨겨져 온 일들이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게 밝히 드러”(교리와 성약 128:18; 124:41 참조) 날 것을 알게 되었다.

3. 구세주께서 사후의 영의 세계를 방문하심과 더불어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배도가 있는 뒤, 이 책임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로 넘겨졌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에게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글자 그대로 수십억이나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씀했다. “요셉 스미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현재는 장막 저편에서 말일의 위대한 사업에 관계하고 계십니다. … 이 경륜의 시대의 어떤 사람도 요셉 스미스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진 날로부터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택에 들어가는 허가증으로서 요셉 스미스 이세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그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 왕국의 열쇠인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러한 생각이 모든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차차 요셉 스미스 이세와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통해 구함받고 또한 구함받을 수 있음을 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설교집 7: 289)

찬사

초기에 암시된 것처럼 요셉 스미스의 생애는 어느 정도는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되었다. 그것은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러서도 똑같았다. 요셉 스미스 역시 주님처럼 새로운 성약을 다시 세우는 최후

의 간증이 최대의 효력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다.(히브리서 9:16 참조) 예언자 요셉은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습격을 받았고 무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그들이 이 사업을 나보다 훨씬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견디었습니다. 나는 나의 간증을 피로써 이 세대에 인봉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가 가버린 연후에야 진전될 것이며, 유언자가 죽은 이후에 간증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저울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는 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메리 엘리자베트 롤린스 라이트너, 그들은 예언자를 알았다. 하이럼과 헬렌 마에 앤드러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4년, 26~27쪽)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누가 요셉 스미스에게 대항하는 일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요셉 스미스가 이 지상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55쪽) 윌포드 우드럽 장로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세대에 요셉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복처럼 영원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설교집, 1837년 4월 7일)

이십세기 말의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충실히 잘 지키는 것이다. 시편의 저자는 말일에 사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쳐서(요셉 스미스역, 시편 11:1~3 참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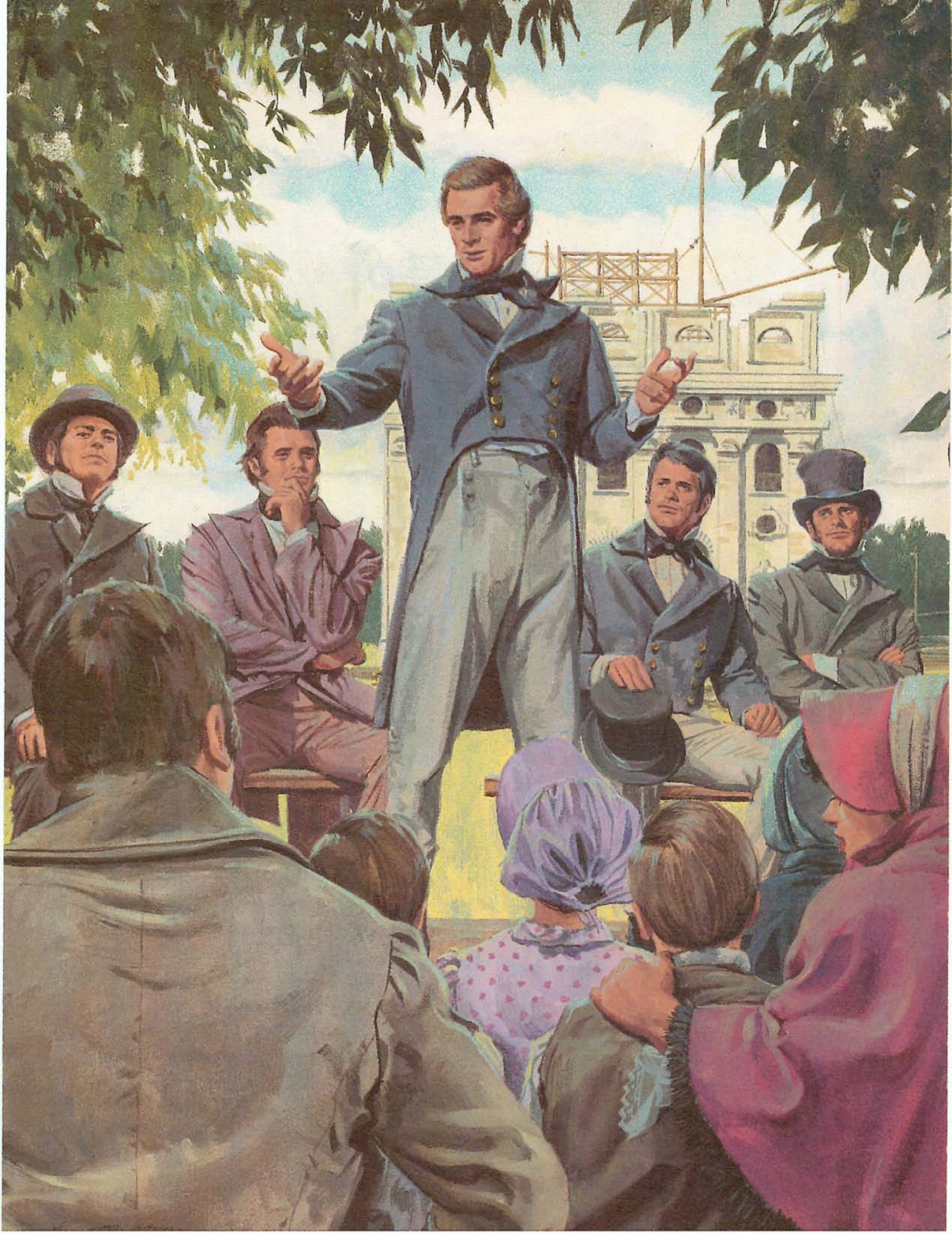
안식일이 되면 나무 성전 건축을 쉬고 예언자 요셉과 다른 신권 지도자들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성전 근처의 나무 숲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대한 우리의 언약의 기초가 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훼손시키려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이 경륜의 시대의 기초자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름과 노력을 중상 비방하려는 사악하고도 교활한 공격이 있었고 앞으로 그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불러 승인하셨고, 회복의 예언자의 이름과 명예를 훼손시키려 기도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머니인 대지의 유적에 묻혀 잊혀지고, 불명예스러운 그들의 평판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스미스가 보였던 모범과 그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녔던 명예와 위엄과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해롤드 비리, 대회 보고, 1973년 10월, 166쪽)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현재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으며,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종잡을 수 없었던 구원의 교리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언약과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일의 위대한 증인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감사함을 증언하게 하시기를 기원한다. □

로버트 엘 밀렛은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육 대학 학장이며 고대 경전 연구 교수이다.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캐럴린 존스톤

넌 시 누나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교회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그 해 여름 누나와 형은 캐나다 국립 전시회에서 어느 전시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선교사들이 *고대 미대륙은 말한다*라는 영화를 보여 주고 있었다. 영화를 본 후 누나와 형은 그곳에서 무료로 주는 몰몬경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누나가 엄마와 나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말을 할 때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선교사들은 누나에게 몰몬경 한 권을 주면서, 교회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냐고 물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누나와 나는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난 후 누나와 나는 침례를 받았으며, 누나는 루크라는 청년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활발한 성격에다 사랑과 정열이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넌시가 그를 만났을 당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었다. 넌시가 그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자 그는 선교사 토론을 몹시 받고 싶어했다. 그의 누이인 레오나르다 역시 복음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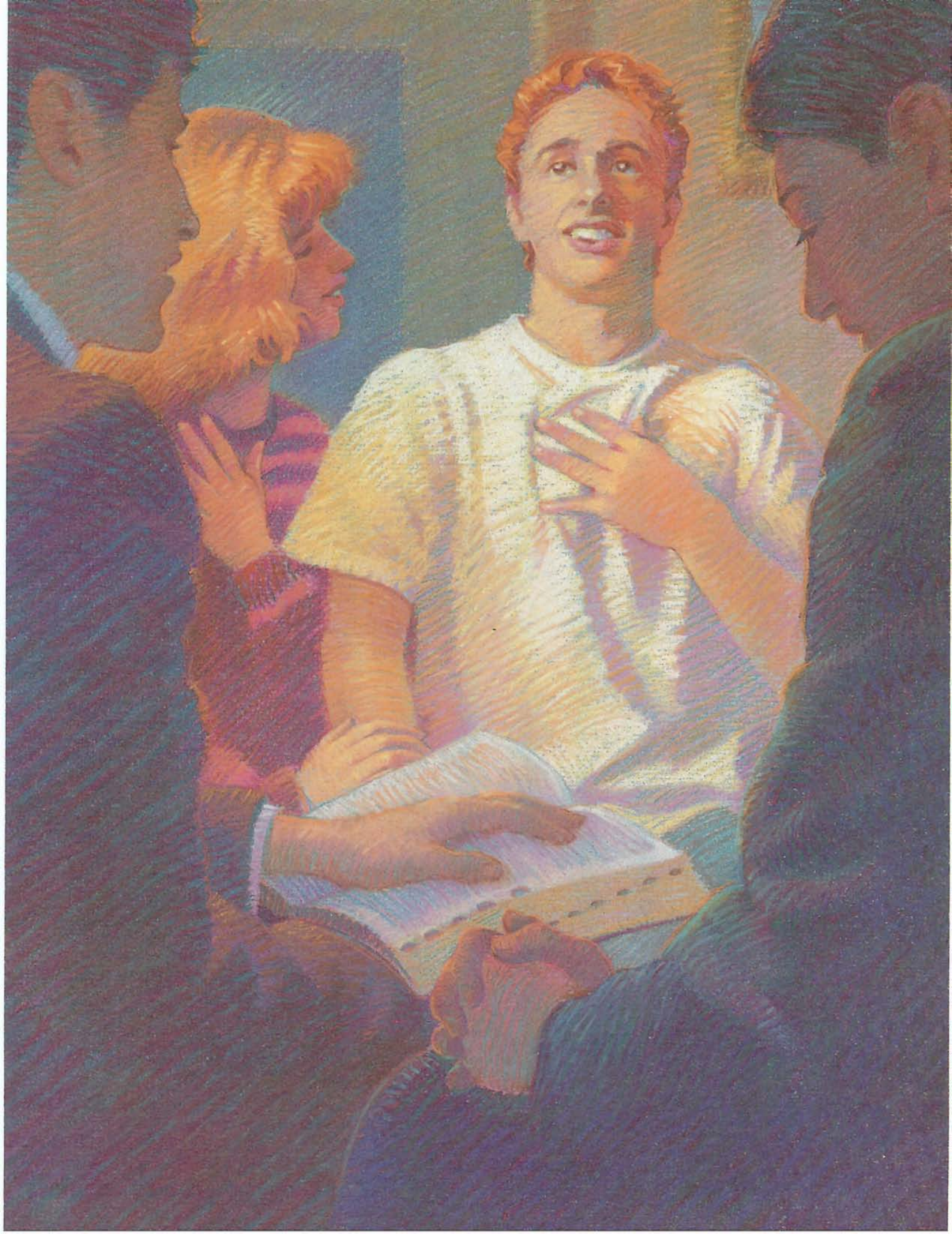
루크와 레오나르다는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

부분의 것을 수용하였지만,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일단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으면 그 밖의 모든 것 즉 몰몬경과 복음의 회복과 예언자들이 가르친 복음 원리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루크와 레오나르다가 다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토론하는 중심 주제는 요셉 스미스였다. 한 장로는 우리들이 각자 순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인가를 여쭙어 보고 응답을 위해 잠시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성령이 요셉 스미스가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증거해 줄 때 그 방에 깃들여 우리들 마음을 감쌌던 그 평화로운 느낌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루크는 침례를 받았으며, 레오나르다는 몇 년 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날 밤 이후 성령은 진리로 가득 찬 그 밖의 복음 원리에 대해 나에게 여러 번 간증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시받은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뚜렷이 자리잡고 있다. 참으로 그날 밤 우리에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다. □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마빈 케이 가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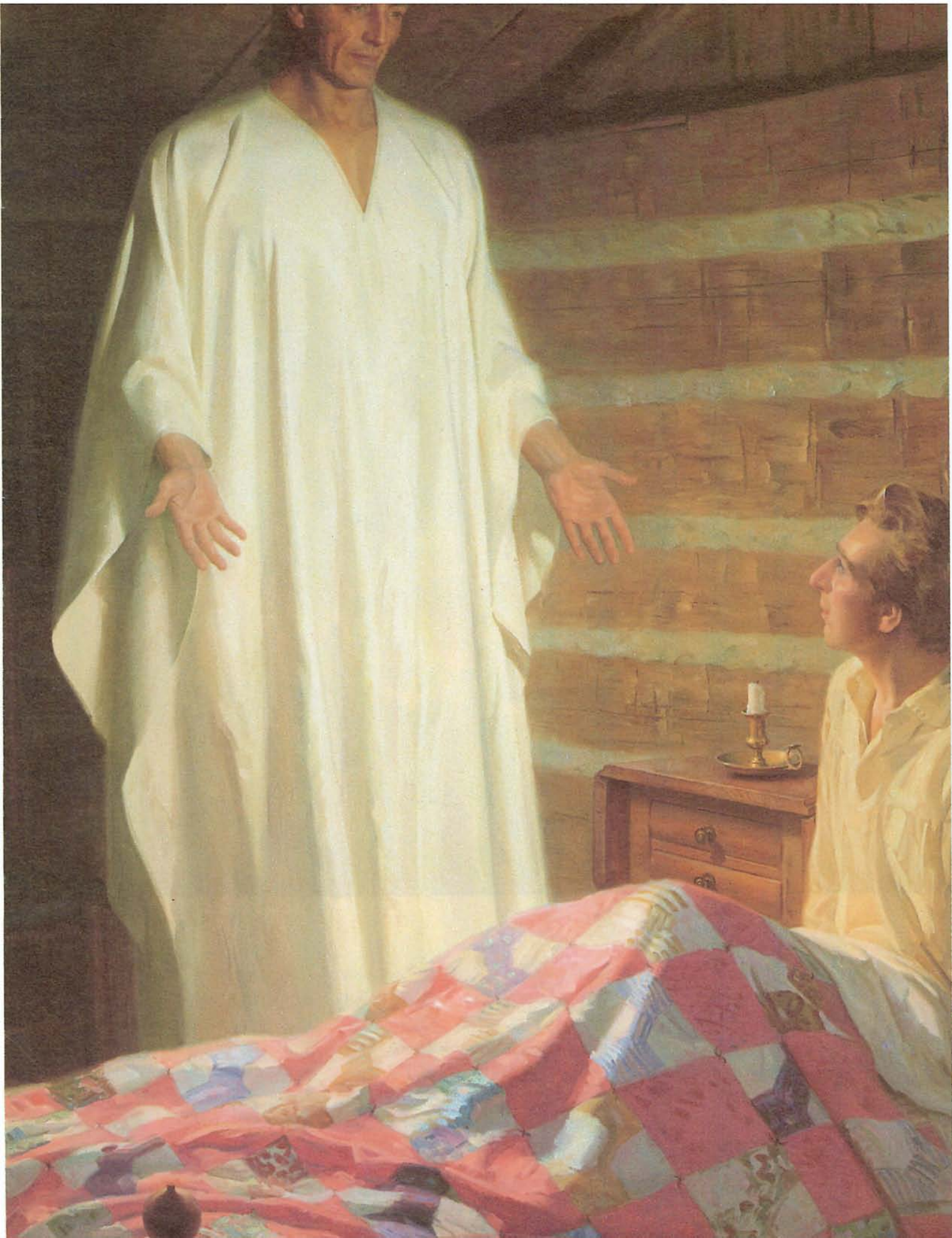
그림·그레그 케이 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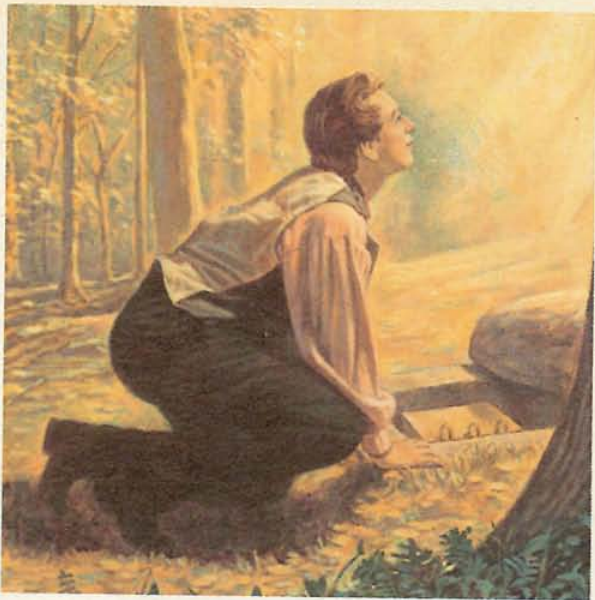
1820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 요셉 스미스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14세의 소년 때였다.

그때로부터 24년 동안 줄곧—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44년 6월, 38세의 나이로 순교할 때까지—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

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하였다. 그 외에 하늘의 사자들이 그를 방문한 사실들과 자신이 본 여러 시현에 관해서도 간증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은 몇 가지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중 일부이다.

이 사건들은 각기 중대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요셉 스미스는 복음에 대한 지식, 진리, 신권의 권능 및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키는 데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종교 단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조직된 교회가





원본: J. 카버랜드, 1820년

아니었다. 하늘 사자들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조직된 교회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이 땅에 내려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성역을 베푸는 동안 교회에 존재하였던 권능과 가르침들을 회복시켜 주었다.

요셉 스미스가 그의 생애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간증을 전한 후, 자신의 피로 인봉한 다음의 간증들을 세계 도처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계속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곧 저(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첫 번째 시현, 1820년(36~37쪽 참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17)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1823년(원쪽).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금판에 기록된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33~34)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음, 1827년(위). “마침내... 가슴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하늘 천사 [모로나이]는 이 금판 등을 내어 주면서 내가 이에 책임을 지며...”

“내게 맡겨진 과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판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



의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요셉 스미스 2서 59~60)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부여함, 1829년(왼쪽).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의 구름에 싸여 내려와 동시에 그의 두 손을 각각 우리들의 머리에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을 성임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중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 사자는 신약 성서에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요셉 스미스 2서 68~69, 72)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함, 1829년(아래).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마시리니,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끝내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확인하게 하였고, 성역을 베푸는 열쇠와 내가 저들에게 계시한 것과 동일한 일을 수행할 열쇠를 지니게 한 자들

이니라.”(교리와 성약 27:12)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가 몰몬경을 증거함, 1829년. “이 몰몬경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하여... 기록된 금판을 보았노라. 또한 우리가 금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때문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금판을 갖고 하강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로 우리가 금판과 아울러 그 위에 새겨진 기사를 보게 되었음을 엄숙히 공포하노라. 또한 우리가 이를 보고 참된 것임을 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요...”(율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몰몬경 서문에 나오는 세 목격자의 증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시현, 1832년.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눈이 열리는지라 주의 영광이 주위에 빛났더라.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어린양을 경배하며 또 영원토록 경배하더라.”(교리와 성약 76:19~21)

해의 왕국에 대한 시현, 1836년(42쪽 참조). “여러 하늘이 우리 위에 열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나니...

“나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들어갈 매우 아름다운 문을 보았나니, 그 문은 마치 나선형으로 타오르는 불꽃에 싸인 것 같았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았은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도 보았느니라.

“나는 금으로 포장된 것같이 보이는 그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았고,

“또한 우리의 시조 아담과 아브



그림: 케네스 알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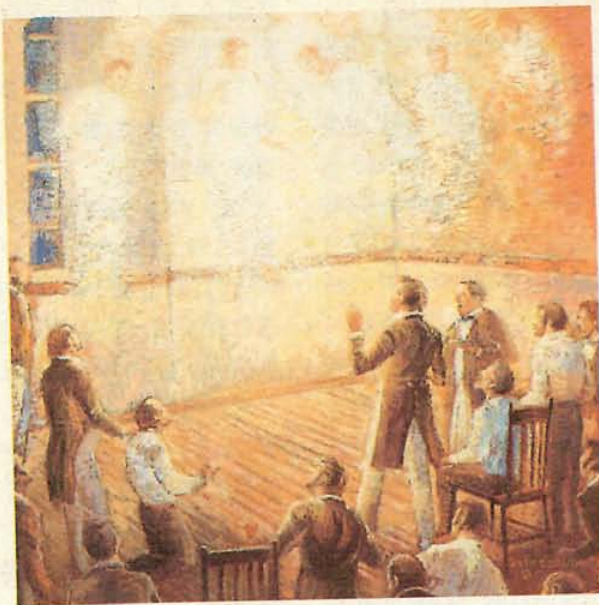


그림: 케리 이 스키스

라함,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래 전에 죽은 나의 형 알빈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7:1~5)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을 받아들이심, 1836년(오른쪽).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견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에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교리와 성약 110:1~3)

모세가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줌, 1836년. “하늘이 또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세계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며 북방 나라에서 열 지파를 인도하여 내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더라.”(교리와 성약 110:11)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의 복음의 열쇠를 줌, 1836년.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맡기며 이르시되,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인하여 우리 후에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더라.”(교리와 성약 1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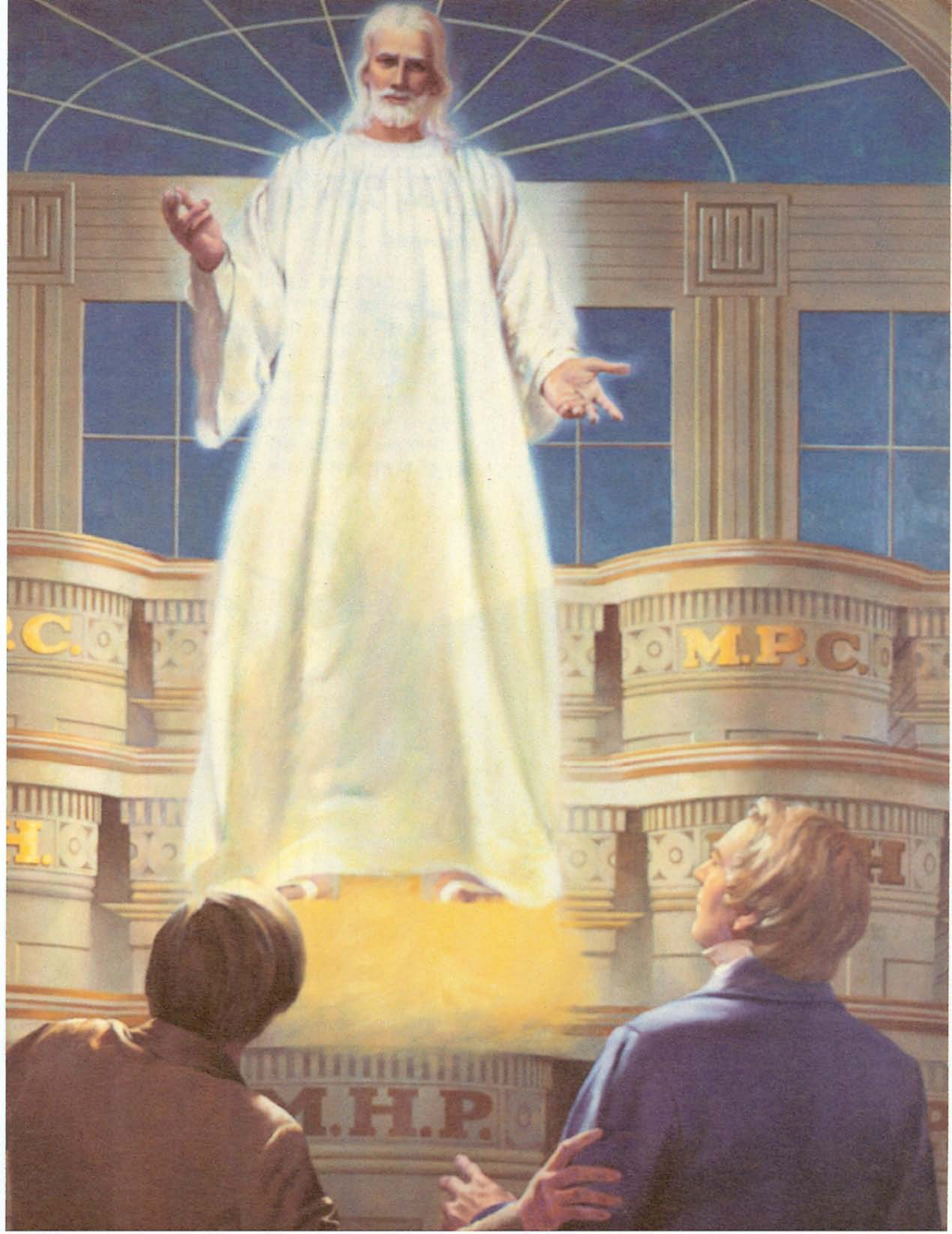
엘리야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줌, 1836년. “이 시현이 닫히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 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 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교리와 성약 110:13~16). □

그림: 데이비드 그로브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지?”

시 알 케르쉬밤

나는 처와 함께 보슬비를 맞으며 호텔로 천천히 걸
어갔다. 그때까지 우리는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회원 기록을 보고 처가쪽 조상의
가족 역사 자료를 베끼는 데 이틀을 보낸 참이었다. 우리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많은 양의 필적들을 판독하느라 지쳐
있었다. 1648년까지 소급해 올라가면서 대대의 조상의 이름
을 찾는 데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1648년까지 교회의 모
든 기록이 30년 전쟁 동안 불타 없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우
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소급해 간 해였다. 나는(처가쪽 계



3페이지 1면 10월 1982년

보 탐구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나의 조상 계보를 탐구할 차례라고 말을 꺼냈다.

나의 할아버지는 네덜란드 본토에서 거주하셨다. 할아버지의 생활 배경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솔린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소도시에서 할아버지가 사신 적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도시는 그때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우리가 당장 그곳으로 떠나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솔린겐 교회 기록 보관소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을 떠나 해질녘쯤 솔린겐이라고 믿었던 곳에 도착했다.

우리는 호텔을 찾아 곧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웨이터가 스프를 가져 왔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도착한 곳이 사실은 솔린겐이 아니라 솔린겐 근교의 한 지역인 그라우랏이라는 것을 웨이터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주문한 식사를 취소하고 부리나케 뛰어나와 차에 올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웨이터는 크게 놀랐다. 솔린겐 중심부까지는 차로 반 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이므로 다음날 아침에 가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솔린겐에는 불행히도 모든 호텔이 만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라우랏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서너 시간 후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다시 주문했다. 그때 웨이터의 놀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왜 급히 서둘러 떠나야 했는지 이유를 웨이터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쓴 웃음을 짓더니 솔린겐 교회의 모든 기록은 그라우랏에 있으며 바로 우리가 목을

호텔 옆 건물에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바로 옆 건물로 갔다. 거기에는 기록 보관소가 있었으며,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문을 연다고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기록 보관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그곳에 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린 뒤 소장자를 만나 그에게 나를 소개했더니 그는 “케르쉬밤 씨, 드디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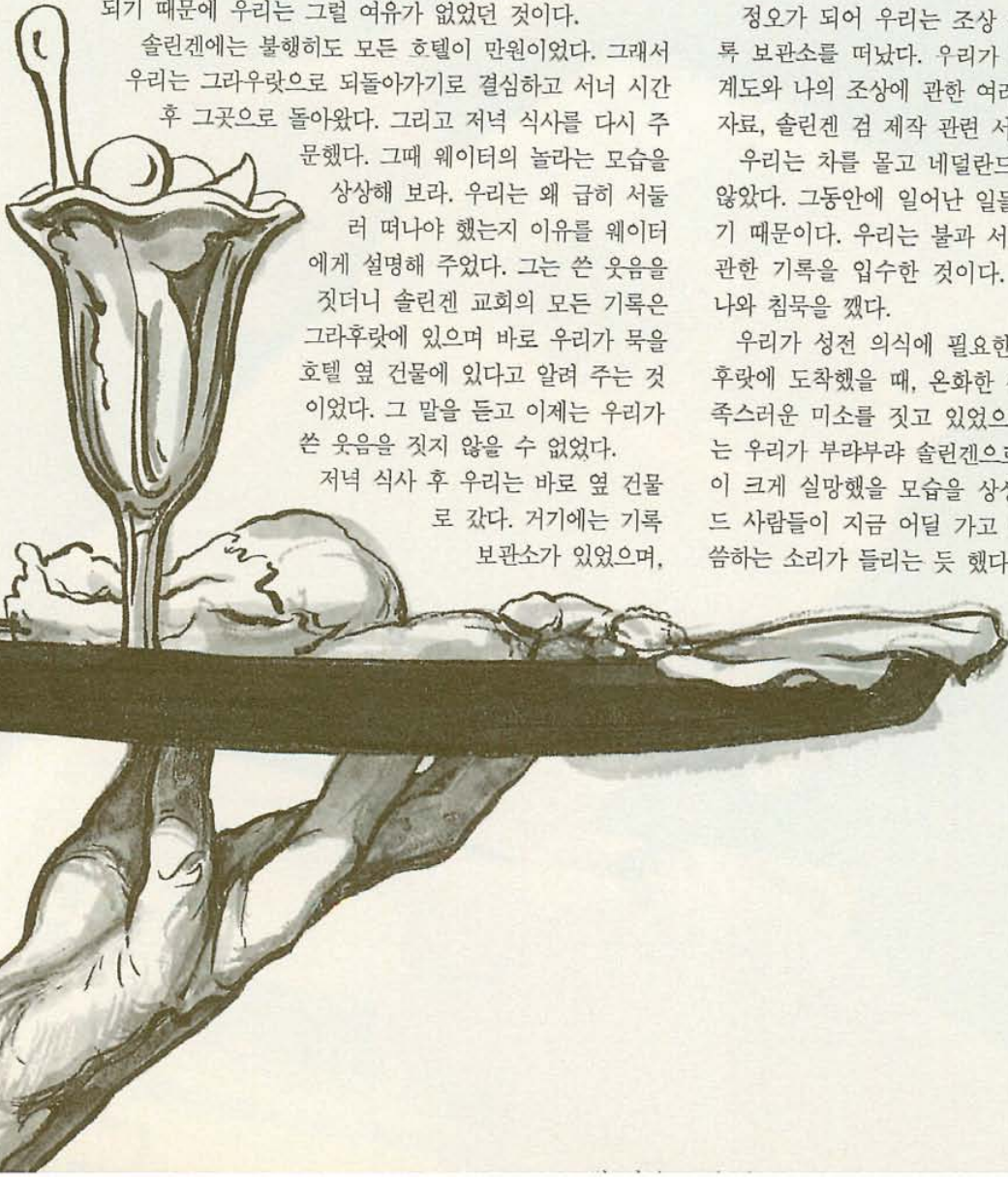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케르쉬밤 가문의 계보 자료는 전임 소장자에 의해서 1500년까지 소급되어 방대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그리고 케르쉬밤 가문은 검을 제작하는 유명한 가문이었으며 이 가문 중에는 시장을 지낸 분도 서너 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조상에 관한 자료를 읽고 케르쉬밤 가문의 전형적 특성인 조용하고 착하면서도 한번 성나면 그렇지 못한 성품을 나의 조상들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현지인이었던 한 공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다. 그는 내 조상 중 한 분에게 비열한 속임수를 썼던 것 같다. 후에 이 사람은 그의 문간에 한 수레의 퇴비가 쌓여진 상태에서 가택 연금된 신세가 되었다. 이는 현지의 시장인 헤르 케르쉬밤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정오가 되어 우리는 조상 수백 명의 계보 자료를 싣고 기록 보관소를 떠났다. 우리가 가져간 계보 자료 가운데는 가계도와 나의 조상에 관한 여러 출판물을 복사한 무수한 사진 자료, 솔린겐 검 제작 관련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차를 몰고 네덜란드로 돌아오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느라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과 서너 시간만에 수백 명의 조상에 관한 기록을 입수한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와 침묵을 깼다.

우리가 성전 의식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인 그라우랏에 도착했을 때, 온화한 성품을 지닌 나의 조상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에는 우리가 부랴부랴 솔린겐으로 차를 몰아갈 때 나의 조상들이 크게 실망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니, 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지?”하고 조상들이 크게 말쑥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





새로운 여름 친구들

재닛 토마스

그것은 하루 4쪽씩 쳐서 17주 걸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메사 아리조나 레드 마운틴 스테이크에 있는 허모사 비스타 와드의 청남·청녀 자매들은 그 일을 해냈다. 그들은 모로나이서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하기로 하고 인원을 여러 팀(한 팀당 10명씩)으로 편성한 다음, 팀별로 물론경 전부를 같이 읽은 것이다.

처음에 팀(그룹) 인원을 10명으로 하고 각 팀장이 지명되었다. 그러나 팀장들이 처음에는 그런 책임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블레이 헬프스 형제는 팀장들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의 누나가 그 전 해에 그와 비슷한 팀장을 맡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팀장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여간 그는 팀장을 맡기로 동의하고 다른 7명과 함께 대열에 끼었다.

각 팀장들은 매주 모든 팀원과 연락을 취하였고 팀원 각자가 그 주에 실행하여 얻은 점수를 가산해 갔다. 점수가 가산되는 조건은 일일 독서 실행, 독서 과제의 수행 여부, 정해진 성구의 암송 그리고 참석하도록 권고 받은 노변의 모임이나 활동 참석 여부였다. 각 팀원에게는 소책자가 한 권씩 주어졌는데 이 책자에는 독서의 진도표, 행사 예정표, 암송할 성구, 모로나이의 약속의 말

씀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각 팀들은 다른 팀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주로 자기 팀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였다.

그동안 일어난 일을 밋첼 쉐퍼드 자매는 이렇게 술회했다. “저는 마음이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요.” 처음 2, 3주 동안은 팀들 사이에 열의가 대단했다.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끝나자 독서량이 줄기 시작했다. 모든 팀원들이 예정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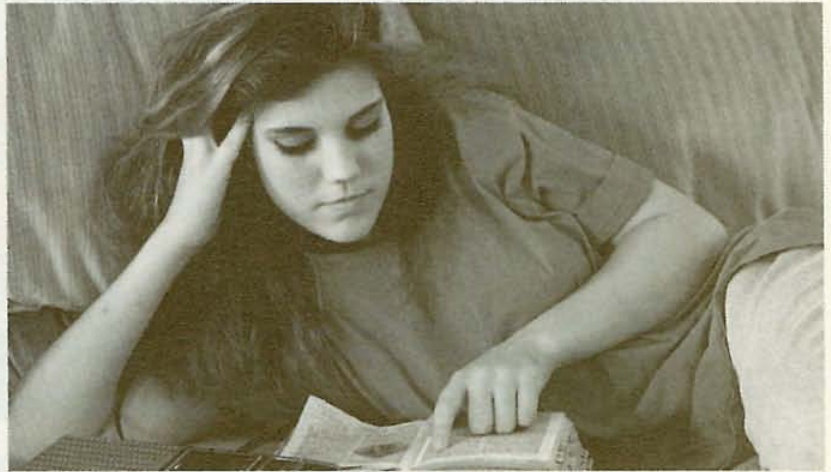
결국에는 끝벌반이 예정표대로 따라가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즉, 몰몬경 읽기 파티를 갖기로 한 것이다. 마리아 대스트럽 자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참석해 본 파티 중에서 가장 이상한 파티였어요. 누구건 몰몬경을 읽기만 하는 데서도 재미를 느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몰몬경 읽기 활동 모임을 갖는 동안에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이크 윌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정말 니파이를 좋아합니다. 그는 훌륭한 본보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니파이서를 읽는 동안 저는 니파이의 형제들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신앙을 쌓았다가도 돌아서서는 다시 사악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팀원들이 모로나이에 대해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모로나이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희망에 차기도 했다. 리사 코링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모로나이가 고별사를 전하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슬펐어요. 하지만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 진실로 알고 싶어할 때는 그의 약속이 효과를 나타내요.”

밋첼 자매도 모로나이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 이렇게 소견을 말한다. “모로나이의 마지막 약속은 그의 백성이 모두 죽고 모든 일이 끝난 후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



몰몬경 읽기

몰몬경을 끝까지 읽는 방법

애리조나주 메시에 있는 청소년들은 몰몬경 읽기를 예정대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권고 사항 리스트를 그대로 따랐다.

- 주의를 집중한다.
- 먼저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읽은 내용을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적용한다.
- 독서 진도표를 작성한다.
- 장의 머리말을 읽는다.
- 밤 아닌 낮에 정신이 깨어 있을 때 읽는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읽도록 노력한다.
- 토론을 위해 몰몬경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읽는다.
- 먼저 모로나이서를 읽은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는다.



몰몬경 읽기 107페이지 107페이지 107페이지

모로나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몰몬경을 전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루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 모로나이의 약속이 참된 것인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한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에 관해 간증함, 그림:로버트 티 버렛



요셉 스미스의 지상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요셉
스미스가 소리를 내어
드린 첫번째 기도에
응답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폭도들이
그와 그의 형을
살해함으로써 끝났다.
이번 호에는 요셉 스미스의
순교 150주년을 추모하여,
그의 삶과 유산에 관한
기사를 몇 편 실었다.